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아침연속극 (미스 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2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화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행복한 고집 55 바른말 고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TV 특강(재)	11 00 방방곡곡 해피드레일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수목드라마 <로맨스타운>(재)	12 00 MBC 뉴스 25 자유통시회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00 SBS 12뉴스 30 건강 클리닉
00 KBS 걸작선 (제병왕 김탁구)(재)		1 15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재)	30 한국의 숲
00 KBS 뉴스 10 현창로도 동행 55 바른말 고운말(재)	10 금요기획 (재)	2 10 스포츠 특선 (재) 55 키즈 어드벤처	00 SBS 뉴스 10 드라마스페셜 (드라마)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KBS 뉴스타임 05 파워퀀텀(재) 35 오로 마을 행복 친구들	3 50 MBC 뉴스	00 세상발견 유레카(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The 비밀반-전주	00 TV 유치원 30 무우와 꾸부	4 00 뽀뽀뽀 아이(재) 30 매직테일러	00 주부들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30 최일빌레이	5 00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재)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춘터뷰 헬륨투 가요리(재)
00 6시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소 당신의 여성시대 50 추수 올림피아 대표 평가전 (대한민국:오만)	6 00 6시 뉴스메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30 생방송 시사메거진 프리즘		7 45 일일시트콤 <몽땅 내 사랑>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8 15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 55 MBC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9	00 비티민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드라마 <로맨스타운>	9 55 수목미니시리즈 <최고의 사랑>	55 드라마스페셜 (시티헌터)
00 환경스페셜 45 아름다운 사람들		10	
00 KBS 뉴스라인 40 정점토론	05 추적 60분	11 05 황금어장	15 테마스페셜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TV 특강	12 20 MBC 뉴스 24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자유통시회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15 TV백과사전 25 나이트라인 35 TV특강 행복플러스

“연예인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예요”

MBC 수목극 ‘최고의 사랑’ 구애정 役 공효진

“연예인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고 싶어요. 깔깔 웃은 후에는 마음 한편을 아프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방극장이 최고의 비호감 연예인 때문에 들쭉거리고 있다. 이름은 구애정. 한때 전국민이 사랑했던 걸 그룹 리더였지만 불미스러운 사건과 루머에 잇달아 연루되면서 비호감으로 분류돼 ‘생계형 연예인’으로 전락한 인물이다. MBC 수목극 ‘최고의 사랑’에서 구애정을 연기 중인 공효진을 최근 경기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만났다.

그는 할 말이 많았다. “심하게 망가지려고 한다. 처음에 시놉시스 볼 때부터 구애정이 시청자의 응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힘든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걸 참피하게 어떻게 해’라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죠?’라고 말하는 게 예뻐보이더라. 아 달아 연루되면서 비호감으로 분류돼 ‘생계형 연예인’으로 전락한 인물이다. MBC 수목극 ‘최고의 사랑’에서 구애정을 연기 중인 공효진을 최근 경기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만났다.

있는 편이다.” 그녀에게 제일 힘든 연기는 무엇일까. “내가 춤도 못추고 노래도 못하기 때문에 국보소녀 연기를 할 때 창피해 죽고 싶다. 원래는 첫회에만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국보소녀가 회상 신으로 매회 나오고 있어 미치겠다.(웃음) 첫 공연 장면은 하루 종일 찍었는데 스킨룩에 가발 쓰고 예쁜 착하러니 정말 미치겠다.”
구애정처럼 실제로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고 답했다. “차곡차곡 압전하게 이미지를 쌓아서 어떤 일이 생겨도 ‘에이 아닐거야’라는 평가를 받는 연예인도 있지만, 우리도 사람인걸라 시장 바닥 같은 연예



계에서 가끔 빠듯도 하고 말 한마디 실 수도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 작은 일에 난리가 난다.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한번의 실수로 그 후 모든 게 싸잡아 매도되는 풍토가 분명히 있다. 다행히 난 그런 경우를 안 겪었지만 내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언뜻 언뜻 어떤 연예인이 무슨 말 언만 하면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깝다. 그러다보니 말을 안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다.” /연출뉴스

‘광주영어방송’ 방송진흥공모 라디오부문 선정

GFN 광주영어방송(사장 김원욱)이 전국 영어방송 최초로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가 공모한 ‘2011년 방송진흥사업 프로그램제 작지원 라디오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방송진흥사업 공모는 방송 문화진흥회가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해외연구 조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왔으며, 광주영어

방송은 라디오부문 특별다큐 ‘보스톤의 재즈, 좁은 길 낮은 마음’이 선정돼 제작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보스톤의 재즈, 좁은 길 낮은 마음’ 프로그램은 국악과

재즈와의 만남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세계화를 시도하는 남도 판소리를 국내외 총 2부작으로 제작해 오는 10월 방송할 예정이다.

특히, 재즈와 국악이라는 음악 장르의 병행에 대해 임재희 방송국장은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연주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6월 1일(음 4월 30일 丁亥)



子

36년생 새로운 인연은 허황된 상처만 남긴다. 48년생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60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후회는 없으리라. 72년생 순풍에 항해하는 형상이다. 84년생 시비가 수에 따르고 신체를 불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02**



丑

37년생 주변이 산만하다. 49년생 의외의 득재와 영전 승진하는 격이다 이성문제에 신중 하라. 61년생 자신 있게 활동하라. 73년생 자신의 입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정성이 무너질라. 85년생 재도전의 꿈이 실현될 징조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3,12**



寅

38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고 도처에 은인이라. 62년생 재미있게 놀다 그물에 걸릴 수도 있다. 74년생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5,10**



卯

39년생 정신이 없는 하루니 각별한 신경을 쓰라. 51년생 주변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생길 수도 있다. 63년생 주변의 협조가 있다. 75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경사가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13**



辰

40년생 특별한 건강에 유념하라. 52년생 풍파를 만난 일련편주니 마음의 안정을 기하라. 64년생 한 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으로 하루가 평안하다. 76년생 경쟁자가 없다고 할나 체는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14,11**



巳

41년생 말쑥하다 결말마다 신중하고 조심하라. 5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배우자의 건강을 챙겨보라. 65년생 바빴던 손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77년생 새로운 삶의 안정된 가정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16,9**



午

42년생 부부간 언쟁 병고 큰 소비가 있으니 현명하게 생활하라. 54년생 부부의 냉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 66년생 불연이 번 물 위의 기름으로 파도람을 당할 수도 있다. 78년생 상당한 고역이 따를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16**



未

43년생 새로운 일 생길 듯하다. 55년생 새로운 일이나 급진거리는 신중하고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67년생 서류의 잘못과 뒷사람의 불면이 있으리라. 79년생 순풍에 항해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14,21**



申

44년생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56년생 안 밖으로 삭막하고 기력이 상실되니 건강에 유의하라. 68년생 애정의 관재가 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80년생 우연한 이성의 만남도 꿈꾸어 보라. **행운의 숫자 : 17,18**



酉

45년생 의심스런 굴속을 지나는 형상이니 살펴봐야 하리라. 57년생 의외의 협조가 있고 식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69년생 고일락이 있으나 나쁘지는 않다. 81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행운의 숫자 : 20,25**



戌

46년생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다. 58년생 직업과 남편사이에 불만과 불평이 나타날 수도 있다. 70년생 큰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82년생 형제 주변의 도움이 있고 학문의 발전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2,23**



亥

47년생 급진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점검도 하라. 59년생 모든 일에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71년생 무리하지만 옳으면 어부지리도 한다. 83년생 보이지 않는 모색을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07,08**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한자 이야기
<p>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좀 천천히 말해주시겠습니까?</p> <p>A :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Callan School? B : I'm sorry. I didn't catch what you said. Could you repeat it, please? A : The Callan School. Is it far from here? B : Sorry, my English is not so good.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p> <p>A : 여보세요. 갈란스쿨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B :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갈란스쿨. 여기서 멀니까? B : 죄송해요. 제 영어실력이 없어서요. 좀 천천히 말해주시겠습니까?</p> <p>*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 I didn't get you. = What was that? = I'm not with you. = I didn't follow you.</p>	<p>上司に胡麻だけすっている。 상사에게 아무만 하고 있어</p> <p>A : あの課長は若いのに、他の人より昇進が早いね。 B : 仕事も熱心だし、親切なので評判がいいよ。 A : うちの課長はどうなの。 B : 能力もないし、上司には胡麻だけ摩っているよ。 A : 저 과장은 젊은데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빠르네. B : 일도 열심히하고, 친절해서 평판이 좋아. A : 우리 과장은 어때? B : 능력도 없고, 상사에게는 아무만 하고 있어.</p> <p>[단어정리] 若いのに 젊은 데도 昇進が早い 승진이 빠르다 評判がいい 평판이 좋다 上司 상사</p>	<p>千里送鵝毛 qiān lǐ sòng é máo 천리 밖에서 보내온 거위 털</p> <p>唐대 변방 한 지방관리 緬伯高라고 불리는 이가 황제에게 백조를 진상하려고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장안에 이르러 오랫동안 지저분해진 백조를 씻기고 자기도 세수를 하려고 꺼내어 씻기는 순간 소홀히 하여 백조가 날라가 버리고 말았지요. 이를 어쩔다. 때문 진실하면 일은 통하는 법. 백조가 남겨놓은 털을 하나 들고서 장안 황궁에 들어가 사실대로 고하면서 말합니다. “千里送鵝毛, 禮輕人意重 - 천리길에 백조털을 바칩니다. 물건은 사소하지만 정중히 받치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황제는 너그러움으로 감싸안습니다. 이후 선물을 전달하면서 ‘약소함니다만. 받아주시시오’ 라는 말을 건넬 때 아무반문을 따와 “千里送鵝毛 천리에서 거위 털을 바칩니다”라고 표현합니다.</p>	<p>視舌(시오설) 볼시, 나오, 혀설</p> <p>시오설(視舌)은 ‘내 혀를 보아라.’라는 뜻으로, 곧 허한 것으면 천하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다.</p> <p>위(魏)나라에 장의(張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초나라 재상인 소양의 집에서 한낱 문객 노릇이나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소양의 ‘화씨지벽(和氏之璧)’이라는 진귀한 구슬이 없어지자, 모두가 장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장의가 파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울며 깨닭을 물었다. 그러자 장의는 느닷없이 혀를 속 내밀며 “내 혀를 보오. 아직 있소, 없소?”하고 물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혀가 있지요.”하고 대답했다. 장의는 “그럼 됐소.”라고 말하였다. 몸은 가령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상관없으나 허한 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혀가 견제해야 살아갈 수 있고 천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의는 그 후 뛰어난 언변으로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p> <p>[출전] 『사기(史記)』 <장의열전(張儀列傳)> * 급수 : 한자능력검정 준4급, 3급, 4급</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p>